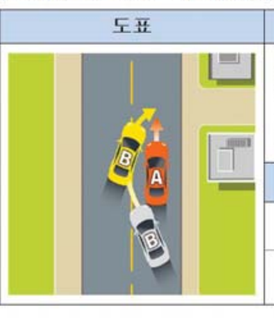
무조건적 쌍방과실 줄어든다

금융위, 30일부터 무리한 추월 등 '100%' 과실 책임

예측 하기 힘든 사고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 적용

<참고> 주요 신설 · 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

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변경)

번호	도표	사고상황			
251 도표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20%	80%	0%	100%

오는 30일부터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와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대 40의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화웨이 올해 스마트폰 매출 24%↓…"세계시장서 퇴출도"

미국 정부가 사실상 금수 조치를 발령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의 올해 스마트폰 매출이 최대 24% 급감하고 장차 세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비지니스 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미국이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9년 4~2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스마트폰 담당 책임자 린다 쑤이(隋琳達)는 내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다시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쑤이는 "화웨이가 구글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2020년 미국과 유럽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중국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화웨이가 완전 파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애초 화웨이의 2019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5800만대로 전망했으나 최악의 경우 2억대 정도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 가격비교 사이트 프라이스 스파이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수출금지 규제를 발표한 이래 화웨이제 기기에 대한 클릭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IDC는 화웨이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30%였고 2018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2억800만대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이중 반수가 중국 밖에서 출하했다. 화웨이는 유럽을 상위 기종의 중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웨이는 그간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려고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필요한 주요 부품과 지적 재산권은 미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의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 컨설팅사 인트라링크의 반도체 산업 전문가 스튜어트 랜들은 화웨이가 최종적으로 수천 명 규모의 종업원을 해고할 처지에 몰리고 "언젠가는 세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역시 아이파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방문객 북적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 선보인 고급 주거복합단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교통, 쇼핑, 문화 등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탁월한 입지와 더불어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신뢰도 덕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24일 광주 서구 죽봉대로 108 일원에 마련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 주말 3일 동안 2만1,500여 명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첫 날 6,000여 명, 둘째 날 7,300여 명, 셋째 날 8,200여 명(추산)의 방문객이 각각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 앞은 개관 첫 날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 마련된 유니트를 둘러보기 위해서도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상담석도 견본주택 폐관 시간이 다 되도록 만석이었으며 대기석에도 상담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원스톱 입지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실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마트(광주점), 신세계백화점(광주점), 금호월드 등의 대형유통시설과 대형서점, 영화관, 음식점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유스퀘어, 병의원 약 120여 개가 몰려 있는 메디컬스트리트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모두 걸어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맞은 편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반경 1km 이내에 광주지하철 1호선 화정역과 농성역이 있다. 여기에 광주 동서를 잇는 무진대로와 남북을 잇는 죽봉대로 등도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해 광주 전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여건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광주서초가 있는 것을 비롯해 반경 약 1km 이내에 서석중, 서석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 이와 함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갖춘 광주천과 발산근린공원, 5.18 기념공원 등도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 목적의 방문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강모씨(50세)는 "단지 인근으로 기아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다 보니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 조건인 배후수요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 방문했다"며 "주변으로 오피스텔도 많지 않아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1~2인 가구 수요 흡수 가능성을 기대하고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단지 가까이에 종사자 7,700여 명에 달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1,2공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으로는 광주광역시청, 호남지방통계청, 전남지방우정청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도보권 내 메디컬스트리트도 형성돼 있어 직주근접 배후수요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와 접한 북측 광천동 일대 42만6,380㎡ 부지에 약 5,700여 세대가 조성되는 광주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신흥주거벨트 조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판상형과 타워형이 고루 적용돼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 선택이 가능하다. 실내는 입주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아이파크만의 혁신평면으로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마련되며 효율적인 기능 및 동선 확보를 고려한 'ㄷ'자형 주방도 일부 세대에 적용된다.

특히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18㎡)는 복층형 구조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픈형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수납 강화를 위한 복도 팬트리와 함께 일부 침실에 워크인 수납공간도 적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맘앤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시니어라운지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최상층 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도 적용될 예정에 있어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고급 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분양관계자는 "교통, 편의,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는 물론 상품도 입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혁신평면으로 설계되다 보니 견본주택을 찾아온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며 "더불어 단지 주변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광주의 경우 아이파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좋은 청약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트·백화점·터미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풍부

내일 특별공급…30일 1순위·31일 2순위 청약 실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청약 일정은 5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30일 1순위, 5월 3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6월 7일, 2단지 6월 11일로 단지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여기에 광주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만큼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2개 단지 내에 지하 4층~지상 39층(총 8개동) 전용면적 84~218㎡ 아파트 705세대와 전용면적 69~79㎡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8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이다.